

보유세 완화...60세 이상 1주택자 세금 유예 유력

한시 조치 아닌 영구 조치 가능성 10년 거주 1주택 10% 세액 공제 내년 보유세 올 수준 동결도 거론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중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이 가운데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

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중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선 당정 협의에서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중부세 한시 납부유예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또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꾸준히 관련 내용을 검토해왔다.

다만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납부 유예는 여당이 언급한 한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 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걸맞은 제도인 만큼 정부는 이번에도 장기 거주 세액공제를 보유세 완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물론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도 아직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이 물망에 올라 있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중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 (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중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

년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또한 고령자 납부 유예와 비교해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공시가 재할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안이 나오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기준을 둘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고령자 납부 유예나 장기 거주 공제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공시가 재할용은 기준을 두는 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포함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 주택 등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내주 마무리 조건부 승인 관측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심사보고서 상정 후 공정위는 심사 결과에 대한 피심인(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초계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서는 사실상 운수권을 100%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 수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했을 때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서는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여객기가 없는 LCC가 당장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지만,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2년 동안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통합 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작은 LCC가 모든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는 만큼 장거리 노선 독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 4개월만에 하락세

원자재가 상승에 오미크론 확산 83.2...전월 대비 15.8P 하락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중중)가 2022년 1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3.2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99.0) 대비 15.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도 3개월 연속 상승세(10월 88.8→11월 92.4→12월 99.0)가 4개월 만에 다시 80포인트 선으로 하락 전환한 것이기도 하다.

원자재가격 상승과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는 등 산업 전체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전월(96.8) 대비 17.0포인트 하락한 79.8로 전망됐고, 전남은 전월(102.4) 대비 14.6포인트 하락한 87.8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5.6으로 전월(100.5) 대비 14.9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0.9로 전월(97.7) 대비 16.8포인트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을 보면 수출(95.0→100.0) 전망은 상승했으나 내수판매(99.5→82.7), 경상이익(92.1→79.6), 자금사정(91.4→77.7) 전망은 모두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이달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여론은 내수부진(53.6%)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원자재가격 상승(51.2%), 인건비 상승(49.3%), 업종간 과당경쟁(47.4%)이 뒤를 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크리스마스 산타오셨네'...광주은행 어린이 학용품 선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 두 번째)은 지난 24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어린이들을 초청해 학용품 등을 선물하는 '크리스마스 산타오셨네' 행사를 열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분부를 통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내달 3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중기부 내년 말까지 2만명 혜택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3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부, 청년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3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내년 말까지 2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중기부는 내년에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와 협업 확대, 무료 직무교육 등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9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4	13	29	38	39	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447,271,875	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8,287,206	69
3	5개 숫자일치					1,439,964	2,793
4	4개 숫자일치					50,000	138,372
5	3개 숫자일치					5,000	2,269,21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